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UN총회 참석

- 제4차 UN해양총회 칠레 공동 개최 의지 표명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노력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9.24)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하여(9.25)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 외교장관, UN측 총괄 조정자인 UN 사무총장 해양특사와의 면담을 통해 회의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양자면담을 통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비준 촉진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조속한 비준 의지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여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양 규범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

UN총회는 196개 UN회원국이 모여 인류 중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UN 최고기관으로, 이번 '해수면 상승'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UN총회의장의 주재 하에 UN사무총장, 40여개국 정상과 80여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전세계 해양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전지구적 해양 문제 대응을 위한 기여 의지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제4차 UN해양총회 우리나라 개최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UN총회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 및 도서국 지원, UN해양규범 주도 등 해양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330)
		담당자	사무관	고준영 (044-200-5341)

□ 개요

- (의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고위급회의('17~)
- (구조) 본행사(본회의, 패널토의),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 약 8일간 진행
- (참석) 193개국(UN 회원국) 및 UN기구, NGO 등 약 10,000여명

□ 특징

- 수십여명의 정상,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
* ('22) 개최국 포함 국가 정상 24명,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비정부기구 수장 참석
- 개최국, 논의 의제, 결과 등이 **UN총회 결의안**을 통해 결정되며, 회의 진행 역시 **UN총회 절차와 형식**에 준하여 이루어짐
- 회의에서 채택하는 **공동선언문**은 국제 해양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해양 규범**으로 작용
* (1차) 행동촉구 선언문(Our Ocean, Our Future : Call for Action), (2차) 리스본 선언(Our Ocean, Our Future, Our Responsibility)

□ 개최현황(3년 주기 개최)

* 관례적으로 개도국·선진국 공동개최 / 본행사는 선진국에서 개최하며, 개도국은 본행사 전년도에 자국에서 관련 행사 개최

회차	개최국	개최지 / 개최일자	우리나라 참석(본회의)
1차	스웨덴·피지	유엔 본부 / '17.6.5.~6.10.	유엔 대사(수석대표),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
2차	포르투갈·케냐	케냐 나이로비 / '18.11.26~28 포르투갈 리스본 / '22.6.27.~7.1* * '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	해수부 차관(수석대표),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3차 (예정)	프랑스·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산호세 / '24.6.7~8 프랑스 니스 / '25.6.9~13	미정

※ 우리나라는 칠레와 4차 회의('28) 개최 추진 중